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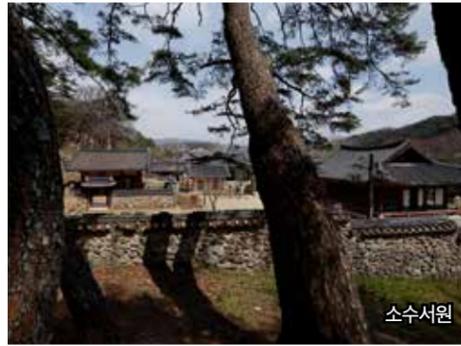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서원사상책

2021. 08. vol.03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옥산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Contents

2021. 08. vol.3

- 01 권두언 4p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장 류한욱
- 02 서원이 있는 풍경 6p
강세황 필 도산서원도
- 03 세계유산 서원 기행 8p
소수서원·돈암서원
- 04 서원과 사람들 24p
경주 옥산서원 이지성 운영위원장
정읍 무성서원 김희선 문화관광해설사
- 05 청소년 서원 탐방기 28p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
- 06 언택트 서원 32p
애니메이션 '서원의 하루'
- 07 관리단 소식 36p
관리단 운영 소식 및 행사
- 08 서원 소식 40p
서원별 소식 및 행사
- 09 세계유산 소식 44p
세계유산 소식



03

소수서원 경내모습



05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



08

귀향길 행사



09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서원이 자연에서 삶의 도리를 읽어내는 지혜의 산실이 되기를...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 푸른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늦을 녀 마주 대할 만하고,
백곡회심유(白谷會深遊) 흰 바위 골짜기는 여럿 모여 그옥이 즐기기 좋구나.

두시(杜詩) '백제성루(白帝城樓)'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병산서원을 찾았습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감염병이 해를 넘겨 질기게도 우리 곁에 머물며 모든 삶을 바꾸어 놓고 있군요. 여느 해 같으면 이즈음의 병산서원은 붉게 핀 백일홍의 고풍적인 자태에 휘감긴 채 그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때이지요. 그러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적 마저 끊어져 버린 금년에는 따가운 햇살 아래 백일홍만 붉게 피고 지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지만 병산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벌써 2주년을 맞이했군요. 등재가 확정되던 순간 터질 듯 가슴 벅찬 감동이 아직도 여운으로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성리학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유학교육시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병산서원은 한국 서원의 발전과정에서 서원의 기능이 교육에서 공론의 장으로 확장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수천 명의 유생이 연명으로 유소를 올린 서원이며, 동시에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병산서원의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있지만 만대루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인위적인 장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입지와 경관 구성 즉, 자연경관이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된 탁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자연 속에서 삶의 도리를 읽어내 실현한 선조들의 지혜의 산실인 것이지요. 만대루에 기대어 병산을 바라봅니다. 저 풍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선비들은 자연을 그저 유희로만 바라보지 않고, 흐르는 물이나 피어난 꽃에서 세상의 올바른 이치와 삶의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마치 순교자처럼 피고 또 지는 병산의 붉은 꽃에 내려앉은 늦은 오후의 햇살 한 줄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모두의 삶을 바꾸려 하지만, 이러한 부침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1년 8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장·병산서원 별유사
류한욱

강세황 필 도산서원도
보물 제522호

姜世晃 筆 陶山書院圖

이 그림은 사·서·화 삼절로 불렸던 강세황(姜世晃)이 1751년(영조 27년) 그린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실경으로 조선후기에 유행하던 남종화풍의 필치로 매우 섬세하게 표현한 산과 계곡이 돋보인다. 도산서원이 중심에 위치하고, 그 앞으로 탁영담(濯纓潭), 반타석(盤陀石) 등을 흐르는 강물과 함께 그렸다. 강물이 돌아나가는 왼편 곡류 위쪽에는 분천서원(汾川書院), 애일당(愛日堂), 분강촌(汾江村) 등이 보인다. 그림 왼편에는 강세황이 쓴 18행의 발문과, 1927년 최남선이 쓴 2행의 수장기가 있다.

발문에는 와병중인 이익선생이 처음엔 '무이도'를 그려 달라 명했으며 이후에 도산도까지 주문한 것으로 적혀 있다. 강세황은 이익선생이 주자와 퇴계 두 선현을 존경하여 도의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강세황은 우리나라 진경산수를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이익 선생으로부터 받은 '도산도'의 구분이 보잘 것 없어 그대로 모사하는 것은 도산서원보다 퇴계 선생을 취한 이익 선생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도산서원에 가본 적이 없는 강세황은 행장을 꾸려 도산으로 달려가 취병과 농운의 승경을 탐방하여 도산의 진면목을 선사하고 아울러, 강세황은 그림을 통해 고인의 큰 뜻을 배우고 마음을 바로잡기를 꾀하고 있다.



도산서원도 부분도



도산서원도 138cm×26.8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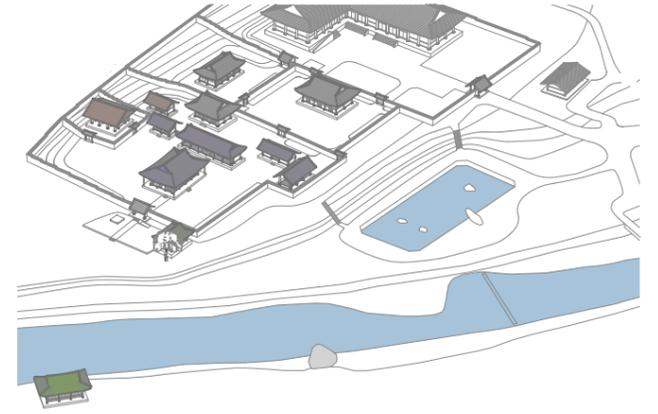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시작을 알리다

소수서원



세계유산가치

1543년에 최초로 건립. 건물, 공간의 기본 요소와 제함과 강학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서원의 기준이 되었다.



- 제향 공간
- 교류와유식 공간
- 강학 공간
- 기타 시설

경상북도 영주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이끌었던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선비들의 정신이 곳곳하게 서려있는 '선비의 고장'이다. 바로 이곳 영주시 순흥면의 맑은 하천변에 자리 잡은 소수서원은 영주 땅에 꽃피운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그 명성이 드높다.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소수서원은 공자가 아닌 우리 땅의 선현에 대해 제를 올리고 유생들을 교육한 첫 번째 교육기관이자 그와 관련한 운영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서원이기도 하다. 여름 햇살 아래 진리를 추구했을 선비들의 낭랑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소수서원 숲 사이로 보이는 경림정

성리학의 정착과 함께 설립된 사립 고등교육기관



서원은 조선 시대에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사립들이 지방에 설립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서원의 공간구성은 성리학을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강당이 중심인 강학 공간, 존경하는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사당이 중심인 제향 공간, 그리고 유생들이 시를 짓고 토론도 벌이며 휴식하고 교류하는 유식 공간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원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을 갈고닦는 인성교육의 장소이다.

소수서원을 필두로 하여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쳐 건립된 9개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교육과 사회활동에 널리 퍼져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서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2019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강학당 내부



문성공묘 내부 진설

국가로부터 공인과 지원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봉에 의하여 1543년 백운동서원으로 건립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성리학 교육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임 풍기군수 이황은 서원이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정착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남감사 심통원에게 서원에 편액과 함께 지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전해 받은 명종이 1550년 대제학 신광한에게 서원의 이름을 짓게 한 바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既廢之學 紹而修之)'에서 소수(紹修)를 차용하여 사액을 내렸다.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 소수서원은 임금으로부터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등의 서적을 하사받는 등 국가 지원이 이어지자 전국에서 유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주세봉 초상



주세봉 선생의 문집 죽계지



유생들을 위한 교육과 기숙의 공간

서원 외삼문(정문)인 지도문을 들어서면 백운동 현판이 달려 있는 강당인 강학당의 측면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서원의 강학공간은 강학당을 중심으로 하여 강학당 북쪽에 장서각, 직방재와 일신재, 학구재와 지락재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과 유사의 집무실과 숙소인 직방재와 일신재는 지도문과 강학당의 중심축 선상에 한 채로 서있고,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이다. 학생들이 기거하며 공부를 하던 학구재와 지락재는 강학당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일신재의 동편에 ‘ㄱ’자로 배열되어 있다.

죽계천을 등지고 있는 지락재는 기단이 외벌대(한 켜)인 서향 건물로 저학년이 사용하였고, 본래 동몽재였던 학구재는 기단이 세 켜로 되어 있는 남향 건물로 고학년이 사용했다고 전한다. 한편 장서각은 학생들의 기숙 건물들과 반대로 직방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강학당



일신재·학구재·지락재



직방재·장서각



서원의 본질 오롯이 담고 있는 소수서원의 건축

서원의 제향 공간은 강학당 서북쪽에 담을 둘러 별도의 구역으로 정해놓고 있다. 담장 뒤편에는 전사청이 자리잡고 있다. 내삼문(신문)을 열면 남향의 문성공묘가 서있다. 서원 전체 배치에서 강당과 사당의 배치구성을 보면 후대 서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전학후묘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두 영역 간에 위계성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제향공간을 서쪽에 배치하고 강학공간을 동쪽에 배치한 것은 서쪽을 상(上)으로 하는 전례를 따르고 있다. 또한 동향의 강당 정면에서 볼 때 사당은 강당의 후면에 위치하고, 강당보다 지대가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위계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서원이 입신양명을 위해 과거를 준비하는 관학으로 변모했던 반면, 한국의 서원은 세계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성리학 사립 교육기관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 속에서 마음 공부를 행하는 유식공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조선의 선비는 선현을 존경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자연을 통해서 사색과 상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책만이 아닌 자연에서도 인격수양을 도모하였는데, 선비들은 정자와 누각 그리고 누대를 지어 외부의 경치를 차경하며 자연을 감상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소수서원의 교류와 유식공간은 주세붕이 세운 경림정과 죽계천 건너 경자바위, 이황이 지은 취한대, 이준이 조성한 탁청지, 그리고 18세기에 건립된 제월루가 하나의 격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현재 제월루가 사라져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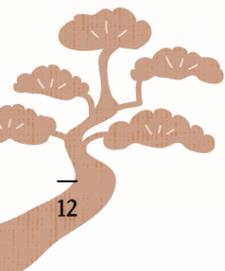
문성공묘·강학당



경림정



경자 바위·취한대



선비촌에서 옛 사람들의 문화 체험해 볼까?

소수서원만 둘러보아도 기분이 상쾌하지만, 서원에 온 김에 서원에 대한 공부라도 좀 하려면 맞은편에 있는 소수박물관을 구경하는 것이 좋다. 소수서원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선비 문화와 영주 지방의 문화유적들이 잘 정리되어 전시돼 있다. 세월의 비를 맞아온 오랜 한옥 처마 밑에 서면 옛 선비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절개가 무엇인지 생각이 날 법도 하다.

소수서원 바로 옆에는 부석사, 소백산 등지와 함께 영주시에서 가장 이름난 여행지인 선비촌이 조성되어 있다. 입구에서 커다란 선비 동상이 맞이해주고 있는 영주 선비촌은 지난 2004년에 개장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다. 그 옛날 선비들의 생활상을 재현해서 선비들의 정신을 본받는 체험교육장이자 관광시설인 셈이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선비촌에는 옛 선비들이 살았을 법한 한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예쁘게 꾸며놓은 한옥과 현대식 꽃밭, 정원 그리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까지 설치되어 있다. 내년에는 선비촌 인근 96만㎡ 부지에 한국문화테마파크와 효문화진흥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효문화진흥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선비문화를 현대적 첨단 시설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선비촌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96
 ☎ 054 - 638 - 6444
 🌐 www.sunbichon.net



한지공예체험장



영주 선비상

봉황산 자락에 기대어 있는 또 하나의 세계유산

소백산 자락의 아름다운 고장 영주에서 소수서원과 함께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 부석사를 꼽아야 할 것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사찰 7곳 중 하나가 바로 부석사이기 때문이다. 양산 통도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13번째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지난 2018년 6월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등재가 결정되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최순우 선생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저서로도 잘 알려진 이 사찰은 서기 617년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우리나라 불교의 큰 줄기인 화엄종이 처음 열린 유서 깊은 명찰이다. 사찰의 이름인 ‘부석’은 문자 그대로 ‘공중에 뜬 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누각인 안양루를 지나면 그 유명한 배흘림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무량수전’이 보인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는 국보중의 국보이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되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옛 건축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배어나는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점에서 특히 귀한 보물로 대접받고 있다.



부석사 안양루



부석사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 054 - 633 - 3464
 🌐 www.pusoksa.org



부석사 무량수전

서원 답사기 2

세계유산가치

1634년에 건립.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이며, 예학을 건축으로 표현한 강학당인 응도당이 탁월하다.



- 제향 공간 ■ 교류와유식 공간
- 강학 공간 ■ 기타 시설

돈암서원은 김장생이 타계한지 3년 후인 1634년 그의 향리에 세워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호학파의 으뜸가는 거유를 배향하는 서원으로서 조선 성리학의 큰 줄기인 기호사림을 이끌고 상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기호문화의 성지'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조선 성리학의 거목,
사계 김장생의 숨결 잦아든
기호학파의 요람
돈암서원



전경

사계 김장생의 학통 잇는 예학문화의 성지

돈암서원은 사계가 세상을 떠난지 3년이 지난 1634년(인조 12년) 지금의 논산 지역인 충청도 연산현의 임리에 문을 열었다. 주향으로 김장생을 모신데 이어 1658년에는 그 아들인 신독재 김집을 필두로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을 차례로 추배해 현재는 사계를 포함, 모두 네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1660년(현종 원년)에 ‘돈암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사액서원의 반열에 올랐다.

처음 지어진 곳의 위치는 지금의 자리에서 서북쪽으로 1.5km 쯤 떨어진 하임리 숲말 일대였다. 서원의 이름인 ‘돈암’도 이 숲말 산기슭에 있던 바위의 이름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런데 이곳은 지대가 낮은데다 연산천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여름이면 홍수 피해가 잦았다. 결국 1880년(고종 17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

돈암서원은 논산평야를 바라보는 들판에 조성된 전형적인 평지 서원이다.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 전위누각인 산양루와 일직 선상에 있는 외삼문을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서원의 구조가 펼쳐진다. 얼핏 보면 여러 채의 건물들이 전후좌우로 질서 없이 배치된 듯 보여 일부 자료에는 일정한 배치형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원 배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이른바 ‘전학후묘(前學後廟)’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전학후묘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구조

전학후묘는 말 그대로 학문과 관련된 시설을 앞에 두고 제사와 관련된 시설을 뒤에 둔 뒤 이 두 영역을 담장으로 구분하는 배치 형식이다. 즉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 좌우로 재실인 동재 거경재(居敬齋)와 서재인 정의재(精義齋)가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 뒤로 강당에 해당되는 양성당(養性堂)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까지가 학문과 관련된 강학(講學)의 영역이다. 제사시설인 승례사(崇禮祠)는 양성당 뒤쪽에 별도의 담장에 둘러싸여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를 따르고 있는데도 건물의 배치에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건물이 뒤늦게 옮겨온 데다 후에 다른 곳에 있던 건물들이 또 들어와 빈터에 자리를 잡게 된 탓이다.



승례사



양성당·거경재·정의재



장판각 사계전서 목판



현판



장판각 내부

정회당은 장판각과 함께 양성당 왼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서원의 중요한 부속시설인 장판각(藏板閣)이 정회당 옆에, 수직(守直) 영역에 해당되는 전사청이 양성당의 오른쪽 뒤편에, 그리고 안내실 역할을 하는 경회당이 외삼문인 입덕문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 새로운 건물들이 터를 잡느라 질서가 다소 흐트러진 듯 보이지만, 실은 외삼문-재실-강당-사당이 일직선으로 늘어진 전학후묘의 방식을 잘 따르고 있고 서원을 이루고 있는 묘당(廟堂), 강학(講學), 유식(遊息), 수직(守直)의 네 영역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돈암서원에 간직된 교육정신

현재 돈암서원 내에는 기원과 규모가 다른 3개의 교육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오래된 정회당은 '고요하게 몸소 실천하며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며, 김장생의 부친 황강 김계휘(1526-1582)가 1557년 낙향하여 후학 양성과 향촌 교화를 위해 고운사 경내에 설립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강학을 펼쳐 연산현의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들었지만 임진왜란 등으로 강학의 전통이 중단되었다.

고운사에 있던 정회당은 195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정회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1고주 5량가 구조의 홑처마 팔작 지붕 건물로서, 중앙 뒷면 2열에는 마루방을 두었다. 기단은 외별대 장대석기단이며 바닥에는 전을 깔았고, 사다리형 초석이 사각형 기둥을 받치고 있다. 현재 인면형 망와에는 '송정3병오년' 기년명에 있는데 1630년에 변화작업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건축물이 양성당이다. 현재 강학 공간의 중심인 양성당은 돈암서원이 1880년(고종 17)에 현 위치로 옮길 때 강당이 되었다. 본래 양성당이 있던 자리는 아한정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김장생은 1602년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아한정 터에 서당인 양성당을 건립하여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하였다. 김장생이 타개하자 아들 김집과 제자들은 스승의 서당 옆에 돈암서원을 세웠다.

양성당은 호서지역의 인재를 배출한 산실이자, 연산천변 숲속의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서 많은 선비들이 찾아와 시를 짓는 등 강론하고 교류하는 명소였다. 양성당은 2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고기와에는 '송정기원후 70 정축년'(1697년에 해당)이란 기록이 남아있다.

응도당, 호서 예학의 확증적 증거

강학시설을 대표하는 강당은 서원을 상징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건물이다. 보물 제1569호로 지정된 응도당(凝道堂)은 우리나라 서원 강당 중에서 제일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유난히 규모가 크고 웅장한데다 건물양식도 매우 독특하다.

서원건물은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대체로 소박 검소하게 짓는 것이 보통이지만 응도당은 육중해 보이는 대들보, 화려 한 익공 장식에 섬세한 화반형 조각 등 아름다운 외관이 돋보인다. 특히 맞배지붕의 양쪽 풍판(風板) 아래쪽에 이른 바 '눈썹치마'를 둔 것은 다른 서원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응도당의 독특한 외형은 김장생의 제자들이 김장생이 세운 예학의 기본인 묘침계를 적용한 결과이다. 김장생은 생전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저술하면서 고대 중국의 예서에서 전하는 이상적인 전각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고, 스승인 율곡과 우계 두 분을 기리는 황산서원 건립(1626년)에 활용 하였다. 황산서원은 1665년(현종 6)에 죽림으로 사액되었다. 송시열이 쓴 돈암서원 원정비문에는 '응도당은 스승의 법도를 따라 고대 예서의 경·대부·사의 하옥제도(厦屋制度)를 적용하여 방, 실, 당, 서, 점, 요, 이, 오, 옥루, 의, 진, 호, 유를 구비하고, 양 옆의 재는 주자의 협실 이름을 취하여 왼쪽을 거경(居敬), 오른쪽을 정의(精義)라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응도당은 하옥제도의 당우제에 따라 맞배지붕이고, 양측면에는 눈썹지붕인 영(榮)을 두고 있다.



응도당영



(돈암서원)가례집람 하옥도



사계 김장생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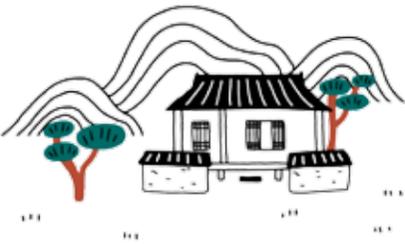
기호학파의 위상을 드높인 성리학의 거두

한국 유학사에서 충청 지역은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쌍벽을 이룬 기호학파의 주요 근거지로 지목되는 곳이다. 지역적으로는 한양에서 가까운 경기도 충청을, 인맥으로는 우계 성혼, 율곡 이이, 구봉 송익필의 학문을 잇는다.

기호학파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 정치와 학문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조선 중후기 정계와 학계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호학파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드높이고 다진 인물로 꼽히는 이가 바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다.

김장생은 기호학파의 비조라 할 수 있는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의 문하에서 배워 그의 학통을 아들 김집을 비롯, 훗날 서인세력의 거두로 조선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계곡 장유 등으로 연결시켜 기호학파를 거대한 학맥으로 완성시킨 장본인이다. 특히 조선중기 성리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예학(禮學)'의 대가로 이 분야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빛나는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간 적이 없는 김장생은 조정의 요직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향리에 거하며 학문과 교육에만 정진하면서도 중앙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산림(山林)'의 거두로서 조정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다.



대유학자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사계고택

논산과 이웃한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의 두마면에는 계축옥사로 인해 낙향한 김장생이 여생을 보냈던 고택이 위치한다. 그는 이곳에서 아들 김집을 비롯해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 후학 양성과 함께 집필 활동에 몰두하던 장소다.

현재 사계고택에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등의 건물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채인 은농재(隱農齋)는 사계 선생이 말년에 거하던 건물로 알려져 있다. 은농재는 본래 초가였으나 훗날 기와지붕을 얹었으며 전면 4칸, 측면 2칸의 일자형 가옥이다. 현재 이 고택의 문간채는 사계 선생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고택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통혼례식이나 가족 사생대회, 규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사계문화살롱'이 열리기도 한다.

1631년 그가 83세로 세상을 떠나자 당대의 대유학자이자 정권의 실세였던 송시열이 행장을 짓고 장유가 신도비명을 지었다. 뿐만 아니라 1657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이어서 1688년에는 조선시대 선비의 가장 큰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문묘(文廟)에 배향되기에 이른다.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 유학자는 모두 18명인데, 조선시대 유학자는 15명에 이른다. 그중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 제자인 송준길과 송시열이 문묘에 모셔져 있다.



가례집람



돈암서원 장판각 사계전서

충남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2-4
042-551-0555
sggt.imweb.me



계룡시에 위치한 사계고택 ©계룡시청

서원의 나아갈 길 고민하는 회재 선생의 15대손 경주 옥산서원

이지성 운영위원장

조선시대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살아남은 옥산서원은 영남학파의 거두 회재 이언적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옥산서원에서 대쪽 같은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추앙받는 회재 선생의 15대손, 이지성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회재 이언적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곳

골 깊고 물 맑은 고즈넉한 산자락에 안겨있는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회재 이언적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회재는 점필재 김종직, 퇴계 이항으로 대표되는 영남사림(嶺南士林)의 선구적인 인물로 주리론을 골자로 하는 퇴계의 학문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당대의 지식인이다. 조선 선조임금 연간인 1572년 창건되어 1574년에는 임금으로부터 편액과 서책을 하사받으며 사액서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추상같은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인데, 이 또한 회재 이언적의 명망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유물전시관을 지나 누군가 일부러 깎아 놓은 듯 편평한 암반 사이로 유리알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옥산천을 따라 잠시 걸으면 어느덧 서원의 외삼문인 역락문(亦樂門)에 다다르게 된다. 성채(城砦)처럼 우뚝 서있는 무변루(無邊樓) 너머에서 중절모를 멋스럽게 눌러 쓴 은발의 신사가 기다리고 있다. 회재 이언적의 15대손 이지성 운영위원장이다.

이지성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서원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예컨대 이지성 운영위원장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옥산서원의 역사 전반에 관해 설명할 때,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우선 방문객들 중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방문 인원 약 30% 정도 늘어나기도 했지요. 또 과거에는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단순 관광을 위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서원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옥산서원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

이지성 운영위원장은 현재 옥산서원을 더욱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 ‘차향 가득한 옥산서원’, ‘서원 사계 사진전’ 등 서원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2년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서원의 문을 활짝 열고 개방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나친 개방이 서원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꼭꼭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서원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누구나 알묘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점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세심대 주변경관



추사 김정희가 쓴 옥산서원 현판

그러나 내실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다. 요즘은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유물전시관 근처에 짓고자 했던 교육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육관이 들어설 더욱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중국 무이대학 주희 연구센터와 진행했던 학술 교류와 같은 행사가 향후 건립될 옥산서원 교육관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원에 현재 가장 필요한 화장실 건물을 짓는 일에도 걸림돌이 아주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지성 운영위원장은 유관 기관에서 서원의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서원 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회재 선생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서원의 운영위원장으로 보여준 옥산서원에 대한 애착이 긍정적인 결과로 치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낮은 담장 너머로 지역사회와 소통했던 옛 선현의 지혜를 전하다 정읍 무성서원

김희선 문화관광해설사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무성서원을 방문한 날은 배롱나무 꽃이 진분홍빛 자태를 과시하는 여름의 한복판이었다. 그러나 오전부터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삼복더위에도 해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무성서원 김희선 문화해설사다.

고운 최치원의 생사당에서 시작된 사액서원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정읍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희선 문화해설사는 고회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정읍의 문화재 곁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수수하고도 고졸한 멋으로 가득한 서원의 옛 건축물을 닮았다.

“작고 소박하지만 무성서원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무성서원은 모두 일곱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어떤 서원보다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성서원은 신라말의 고운 최치원 선생을 비롯해 수적으로도 9개 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신라 말기의 학자 고운 최치원을 비롯해 모두 일곱 명의 학자들을 배향하고 있다. 신라시대 이 지역은 태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당시 고을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의 선정과 어진 인품을 잊지 못한 지역민들이 생사당을 건립했다. 이후 조선 성종임금 때인 1483년,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으로 이 사당을 옮기면서 옛 지명에서 따온 이름을 붙여 ‘태산사’라 부르게 되었다. 1615년에는 지역 유림들이 현감 신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생사당과 최치원을 모신 태산사 그리고 향학당을 합치면서 태산서원이 되었고, 1696년 마침내 숙종임금이 ‘무성서원’이라는 이름을 새긴 현판을 내리면서 사액서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친화적 공간

문루이자 유식의 공간인 현가루(絃歌樓)를 지나 서원 안으로 들어서면 강당인 명륜당이 눈에 들어온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강당 건물은 그야말로 고졸한 멋이 느껴지는 흙처마와 맞배지붕을 얹은 건물이다. 상당수의 방문객들은 무성서원의 정문인 현가루를 통과하고 나면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고 한다. 대개 산자락에 기대어 있는 서원의 입지와는 다르게 평지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작아 소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의 서원들이 외따로 떨어진 산자락의 수려한 경관 속에 둘러싸인 반면 무성서원에서는 마을의 민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친화적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무성서원에는 소박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사당인 태산사로 통하는 나지막한 내삼문이 바로 그것. 다른 서원에 비해 유난히 작은 내삼문은 일부러 문설주 위쪽의 문머리를 낮게 설계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선현에게 예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다.

“이곳은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출입문의 높이가 낮은 이유는 누구든 이 문을 통과할 때 고개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연스럽게 배향 인물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명륜당으로 돌아 나오니 담장 위에 배롱나무 가지가 걸쳐 있다. 매년 여름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강수재가 위치하는 동쪽 담벼락 위로 화사한 배롱나무 꽃을 볼 수 있다. 마치 꽃향기가 나지막한 담벼락을 넘어 명륜당까지 전해오는 듯하다. 안팎을 구분 짓는 경계인 담벼락을 낮췄을 만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하게 여겼던 장소이기에 무성서원을 찾는 사람들은 이러한 풍경조차 뜻깊게 느껴질 것이다.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 서원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영주 소수서원



영주 소수서원



안동도산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상빈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가 눈에 띈다. 한상빈 학생은 방학을 이용해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동과 영주의 서원 세 곳에서 한상빈 학생이 느꼈을 우리 서원의 가치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글 | 한상빈(Jake Han, 미국 커버넌트 크리스천 아카데미 11학년)



안동명산서원

행운처럼 다가온 청소년 지킴이 활동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국에 돌아왔다. 무료했던 2주간의 격리를 끝냈지만 방학 기간에도 대입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한국에 왔지만 정작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업으로 인해 연일 바쁘고 지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차 가까워질 무렵, 부모님의 소개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조선의 궁궐 탐방을 좋아했고 ‘현충사 청소년 문화유산 지킴이’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활동을 했던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정말 행운처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지킴이’ 1기의 첫 탐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로 부푼 마음과 함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안동과 선비문화의 중심인 영주를 1박 2일 동안 탐방할 수 있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가르침

탐방 첫째 날, 아이들과 첫 탐방 장소인 안동 병산서원에 도착하였다. 안동 병산서원은 임진왜란 때의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였던 서애 류성룡 선생을 모시는 곳이다. 입구로 들어섰을 때 병산서원의 강당인 입교당의 모습을 보았는데, 주변의 경관과 하나가 된 병산서원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다. 특히 입교당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만대루에 올랐을 때 눈 앞에 펼쳐진 전경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와 같았다.

병산서원 유사님의 안내로 서애 류성룡 선생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존덕사로 발걸음을 옮기니 처음 병산서원을 들어올 때보다 더 경건한 모습과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었다. 무척 더운 날씨였지만 소나기가 한차례 시원하게 내려주었다. 우리들은 병산서원 입교당 처마 끝에서 정겹게 떨어지는 낙수 소리를 들으며 병산서원의 추억을 정리하였다.



안동병산서원



안동병산서원 입교당



#서애류성룡선생 #안동병산서원 #안동 #임진왜란 #입교당 #만대루 #소나기

도산서원에서 만난 퇴계 선생의 흔적

병산서원에 이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뜻을 이어받아 후학을 양성하는 도산서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나기가 내린 뒤라 도산서원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정말 푸른 하늘과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가 청소년 자킴이 1기여서일까? 이동신 유사님께서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과 그 정신이 반영된 도산서원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주셨다. 특히 퇴계 이황 선생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는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이야기가 무척 인상 깊었다.

최초의 사액서원에서 옛 선현들을 생각하다

탐방 2일차, 강명숙 해설사님과 함께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탐방하였다. 고려 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전파한 회향 선생을 기리는 백운동서원이 풍기군수 주세붕 선생에 의해 건립되고 이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 선생의 건의로 명종 5년, 임금님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한반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전날 도산서원에서 들었던 퇴계 이황 선생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다. 또한 소수서원은 병산서원이나 도산서원과 달리 평지에 터를 잡고 있어서 강학공간이나 문성공묘, 전사청, 학구재, 장서각 등 서원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들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았다.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 서원 알릴 거예요

안동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영주 소수서원을 탐방하면서 나는 평소 모르던 한국 서원의 아름다움과 각 서원별로 배향되고 있는 위인들의 정신을 알게 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세 곳의 서원 모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는 높은 사회적 신분일수록 많은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서원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셨다.



언택트 서원



수채화처럼 산뜻하고 백과사전처럼 유익한 서원 이야기

애니메이션 '서원의 하루'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어보세요



'서원의 하루' 애니메이션 보기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 및 유식공간

지원공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서원의 기능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서원의 하루'를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향, 강학 그리고 교류와 유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옛 서원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는 것은 물론 서원의 각 공간이 어떻게 사람과 어우러져 고유의 기능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은 수채화 느낌의 그림과 실사가 조화를 이룬 영상미가 돋보인다.

제향공간 :

스승의 학덕을 기리며 학문을 좇다



제향공간은 제향의례를 행하던 장소다. 예부터 서원에서는 학문이 뛰어난 선현의 학덕을 제향의례를 통해 추앙하였다. 따라서 서원의 위상은 외적 규모보다 사당에 어떤 분을 모셨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제향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춘추향사'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례' 그리고 정월 초닷새 즈음에 지내는 '정알례'가 있다. 이 가운데 '춘추향사'는 가장 중요한 제향의례로 여겨졌다.

제향에는 모두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제물마련과 제관을 정하는 집사분정 그리고 축문쓰기 등을 첫날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튿날 동이 트면 정갈한 몸과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사당에 모인 뒤 제례의식의 순서를 적은 '홀기' 낭독에 따라 제관들이 예를 다한다.



제향의 순서

- 입재 → 성생례 → 집사분정 → 제물근봉 → 제물점시 → 사우입장
- 분향례 → 초헌례 → 아헌례 → 종헌례 → 철변두 → 음복례
- 향약낭독 → 파제

강학공간 :

경서를 탐독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다



강학공간은 학문에 힘쓰며 마음을 수양하는 장소다. 서원의 강학은 강의와 토론이 이뤄지는 학문의 공간인 강당과 유생들이 기숙하는 동재, 서재의 재사(齋舍)에서 이뤄진다.

서원교육은 성리학 교재와 서원에 모신 선현이 지은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서원마다 교육 내용이 달랐다. 예컨대 도산서원은 이황의 학문을 바탕으로 '심성'과 '우주론'이, 돈암서원은 김장생의 '의례'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서원에 남아있는 '강학규약', '강학내용', '평가', '강학의례'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서원은 입신양명을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일보다, 성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생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익혔다. 이처럼 고된 수련을 거치며 학식과 덕행을 두루 갖춘 진정한 '선비'의 길이다.



교류 및 유식공간 :

자연을 곁에 두고 심신을 이완하다

유식(遊息)이란 마음 편히 쉬는다는 의미다. 평소 학업에 몰두하던 유생들은 긴장감에서 벗어나 서원 내 누각 등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쉬고 시회를 열었으며 성리학적 교류도 이루어졌다. 병산서원 만대루, 옥산서원 무변루, 소수서원의 취한대 등이 이러한 유식의 공간이다.

붓과 책을 잠시 내려놓고, 차향을 음미하거나 자연의 맑은 기운을 내 안에 들이는 것. 쾌적한 바람이 흐르는 대청마루에 모여서 시를 짓고, 산수화를 그리다 보면 자연이 곧 스승임을 깨닫게 된다. '유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서원 안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인 '누정'이다.

유식공간에는 서원 바깥 사람들인 명망 높은 성리학자나 관료들이 모여들어 교류했다. 덕분에 누정에 걸려있는 다양한 현판에는 이들의 울골은 선비정신과 학문의 깊이가 뚜렷하게 아로 새겨져 있다. 이렇듯 유식은 인간과 자연의 '소통'과 '조화로운 공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반기문 여성권익상 수상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이 제5회 반기문 여성 권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비영리 국제 단체인 '아시아 이니셔티브'가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배용 이사장은 이화여대 총장 재직 당시 국제교류처를 신설하고 여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장을 폭넓게 여는 등 여성 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기문 여성권익상'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에 있어 이룩한 성과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아시아 여성 지도자로서는 최초이다.



소수서원 유림연수과정 특강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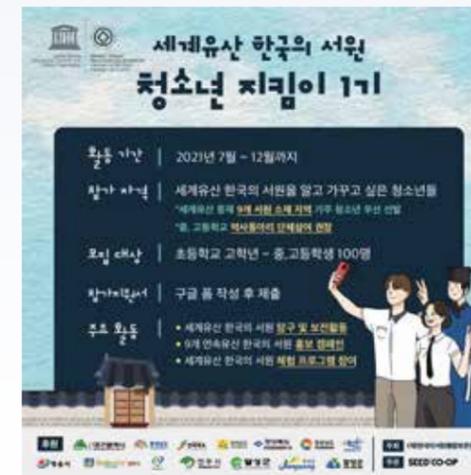
소수서원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우)가 주최하는 '2021 유림 연수과정' 개강식이 지난 5월 22일 소수서원 충효교육관에서 열렸다.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은 이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과 소수서원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과 소수서원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소수서원 보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유림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강단에 올랐다. 이배용 이사장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한국의 서원이 최종 등재 발표되었던 감동의 순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의미, 서원의 위치와 역할 등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한국의 서원을 제대로 알아 가꾸고 싶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될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 대상으로 하며,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 소재 지역 거주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한국의 서원 통합 리플릿 발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9개 서원 통합 리플릿을 제작, 발행하였다. 이번 통합 리플릿은 9개 서원의 자연경관, 기능, 역할,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 담은 홍보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 리플릿은 각 서원에 비치되어 방문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활용하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 지적기반 정사영상 제작

올해부터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9개 서원의 고정밀 정사영상을 촬영하여 시계열 공간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원관리단은 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협업하여 9개 서원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변화를 파악하는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정사영상이란 지형의 기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사진의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해 지상의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본 형태로 변환한 영상으로 일반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높다. 지속적인 정사영상 촬영을 통해 세계유산과 그 주변 환경의 변화를 추적 관리할 수 있고, 서원별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 서원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방문객 무인 계수기 설치



지난 6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를 위한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9개 서원 전체에 무인 계수기 설치를 완료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 1차 설치(필암서원, 도동서원, 무성서원)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2차 설치(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까지 이루어졌다.

적외선 센서 감지 방식의 무인 계수기는 서원에 입장하는 방문객을 계수하는 것으로, 9개 서원 방문객 집계를 통한 관광 현황 분석 및 방문객 증감에 따른 유산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되었다. 또한 세계유산협약 제29조에 따른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 시 방문객 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방문객 계수 데이터(월별)는 서원관리단 홈페이지(k-seo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계수기

📊 2021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 모니터링 실시

서원관리단은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통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세계유산은 유산의 보존 현황을 제시하고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세계유산 위원회에 세계유산 보존 상태와 보호 활동에 관하여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한국의 서원'은 등재 신청 당시 유산의 모니터링 현황과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등재 이후에도 본 지표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정기보고를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9개 서원은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리 주체가 달라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9개 서원에 대한 통합 관리계획 수립을 권고받았다. 통합 모니터링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매년 개선작업을 거쳐 문화재 안전 경비원(1일), 서원 유사(1개월), 서원관리단(3개월), 전문가(비정기)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원관리단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주관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앱(APP)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서원의 주요 관계자인 유사(有司)들이 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서원 유사들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문화유산인 향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 서원의 운영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식량례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서원을 방문하며, 사우 내부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도 출입과 점검이 용이하기에 서원 유사를 월간 모니터링 시행 주체로 선정하게 되었다.

서원관리단에서는 입력된 내용을 매월 비교 분석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어 현지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활동들은 서원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정부 기관간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모니터링

모니터링 앱



개막식

'퇴계 이황의 귀향길 재현 걷기' 행사 개최

지난 4월 15일, 서울 경복궁에서 '제2회 퇴계 이황의 귀향길 재현 걷기' 행사가 열렸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 450주년을 기념하며, 선생의 뜻과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갖과 도포를 착용하는 등 그 옛날 선비 복장으로 경복궁에서 도선서당까지 이어지는 약 270km 길이의 귀향길을 퇴계 선생의 귀향 날짜(음력 기준)에 맞춰 2주간 교대로 걸었다. 4월 28일 열린 마지막 걷기는 오전 8시 30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한 삼골재에서 도산서원까지 약 1km 구간을 걷는 행사였다. 마지막 걷기 행사에는 김병일 도산서원장, 허권수 경상대 명예교수, 퇴계 선생 17대 종선 이치억 씨를 비롯해 별유사, 재유사 등 서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 마지막 날 도산서원으로 진입하고 있는 참가자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135년 만에 돌아온 소수서원 '입원록', '원록등본'

영주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과 '원록등본'이 135년 만에 돌아왔다. '입원록'은 1543년부터 1888년까지 약 350년간 소수서원에 입원한 4,000여 명 학생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그 중 1권(1543~1696 입원유생 735명 명단)과 '원록등본'은 1886년 도산서원 유생이 빌려갔다가 최근까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되어 있었다. 이번 고문서 반환은 소수서원운영위원회의 정중한 반환 요청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흔쾌히 수락하면서 절차대로 반환이 진행되었다. 한편, 반환된 고문서 2점은 소수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다.



반환된 입원록을 맞이하는 소수서원 유사들 ©소수서원



입원록 ©소수서원



소수서원 유사들 ©소수서원



2021년 9개 서원 추계향사 일정



유생들은 평소에는 서원 강당에 모여 글공부를 하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 등 삭망에 분향을 하는 알묘를 하고, 봄과 가을 두 차례 사우에서 향사를 지냈다. 사족들은 이를 통해 지방사회를 교화하면서, 서원을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향의례가 남아 있는 까닭에 아직까지 서원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제자와 후손들도 선현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예가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이다. 서원은 교육의 강화 기능과 함께 제향의례를 통해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였다.

주로 비탈진 곳에 서원이 세워져 앞쪽에 강당을 세우고, 뒤쪽이나 위쪽이 되는 곳에 사우를 지어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패를 모셨다. 초기 서원에서 제향하는 인물은 도학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충의와 절의도 제향의 근거가 되었다. 서원의 위상은 외적인 규모보다는 사우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에게는 제자도 많을 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서원도 많았다.



서원명	추계 제향일(예정)
소수서원	10월 6일 (9월 초정일)
남계서원	9월 26일 (8월 중정일)
옥산서원	9월 26일 (8월 중정일)
도산서원	9월 26일 (8월 중정일)
필암서원	9월 26일 (8월 중정일)
도동서원	9월 26일 (8월 중정일)
병산서원	10월 6일 (9월 초정일)
무성서원	9월 26일 (8월 중정일)
둔암서원	9월 21일 (음력 8월 15일)



※올해 추계 향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도산서원 향사입니다.)



‘2021 세계유산축전’ 성대한 막을 올린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세계유산축전’이 4곳의 문화유산 거점에서 그 성대한 막을 열었다. 첫 축전은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와 부여, 익산 일대에서 시작되는데 이어 9월에는 안동과 수원 화성 일대, 10월에는 화산섬 제주의 용암동굴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이 축제와 공연 등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8월 13일에 개막하는 첫 축전은 ‘찬란한 유산, AGAIN(어게인) 백제로’를 주제로 공주-부여-익산을 연결하는 3원 중계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와 결합된 주제공연, 드론으로 펼치는 불꽃축제가 축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두 번째 행사는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음악회 <도산12곡>, 병산서원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병산 서원에서의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축전 통합누리집(worldheritage.modoo.at)을 방문하거나 전화 (02-3210-4802)로 안내받을 수 있다.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주요 행사

행사명	제목	내용
서원축제 (11월초 예정)	기념식	등재 2주년 기념식
	축하공연	전통음악향연, 인문학 강연
국내 학술포럼 (11월초 예정)	세계유산 등재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계유산 및 서원 관련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서원(9개 서원)의 통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중요한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	
	한국서원의 가치 (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진정성과 완전성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국내 세계유산 관광
	지속가능한 교육	서원의 교육환경
서원의 인성교육		
국제 학술포럼 (11월 중순 예정)	세계유산 및 서원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유산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	
	세계유산 통합 관리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및 활용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세계유산 통합관리
		세계유산 통합홍보
	서원 관리 및 활용	관리현황과 대책
		홍보·활용 현황과 대책
		통합 관리연구 성과 및 과제
서원답사	서원답사 및 좌담회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 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4차 세계유산관리자 포럼 개최

글 |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오혜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 앞서, 세계유산센터와 세계유산 자문기구(IUCN, ICCROM, ICOMOS)는 2021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4차 세계유산관리자 포럼(The 4th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Forum)'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세계유산 관리자포럼은 2017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관리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유산 관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올해 포럼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포럼은 중국, 세계유산센터 및 IUCN-ICCROM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조직하여 "세계유산 거버넌스-변화와 연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World Heritage governance - Being prepared to manage change and continuity)"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계유산 거버넌스-변화와 연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

1. 세계유산관리와 활용가능한 도구
2. 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조: 유산관리자 역할에 대한 이해
3.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변화에 대한 준비
4. 변화에 대한 관리방법과 참여자



6일 간의 포럼 기간 동안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포함하여 전 세계 85개 세계 유산에서 온 90명의 참가자들이 중국의 세계유산인 Kulangsu를 사례로 속성과 가치, 관리 목표와 효과성 평가 및 거버넌스 구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재 세계유산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맥락과 장소에 따라 다른 관리기법 도입, 인간 중심 접근법, 기후 변화 관리, 유산영향평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등 30여개 이상의 유산 전문가 강연이 이루어졌다. 포럼 말미에는 참가자들이 협업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17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본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함으로써 타 세계유산 관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유산 분야의 최신 동향과 관리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관리자 포럼 참석자(온라인)]



*출처 : <https://whc.unesco.org/en/news/2309>

참고사이트

<https://whc.unesco.org/en/whsmf2021>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글 |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오혜인

2021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Extended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푸저우(Fuzhou)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라 선출된 협약 당사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위원회로, 매년 최소 1회(6월/7월)에 소집되어 당사국과 협력하여 세계유산제도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21개국으로 구성된 위원국들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255개 유산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53개 유산에 대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 및 34개의 신규 목록 등재를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기후변화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문서 개정과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의 정기보고에 대한 결과 등이 검토되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세계유산목록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본 유산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던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는 항만지구 근처 신규 개발로 인해 경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역대 3번째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¹⁾ 이는 등재 이후에도 도시개발, 관광 압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모든 세계유산들에 있어 신규 개발 및 승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개발과 보존의 접점을 도출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1) 세계유산 삭제 목록: 오만 아라비아 오릭스(영양) 보호구역(2007, 자연유산),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2009, 문화유산), 영국 리버풀-해양산업도시(2021, 문화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의무 중 하나는 자국 내 세계유산의 보존현황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는 6년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보고 지역이 변경되고, 금번 위원회에서는 아랍, 아프리카 지역이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기보고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2022년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러시아 카잔)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예비심사(Preliminary Assessment)단계가 도입되며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다. 기존 등재 신청과정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어 잠정목록 등재 →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자문기구 평가 → 세계유산위원회 상정 및 결정 단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잠정목록 등재와 세계유산 등재 신청 사이에 예비심사 절차가 도입되면서 잠정목록 등재 → 예비심사(1년) →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자문기구 평가 → 세계유산위원회 상정 및 결정 단계로 진행된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는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폐막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